

파룬따파 흥전 세계

파룬따파(法輪大法)는 또 파룬궁(法輪功)이라고 하는데 라훙쯔 선생이 1992년 5월에 전해 나온 불가(佛家) 상승(上乘)의 수련대법이며, ‘진, 선, 인(真、善、忍)’을 근본 지도로 하며, 5조의 느리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친다

파룬따파는 수련자에게 ‘진, 선, 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도덕 수준을 승화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면 사람을 성실하고 선량하고 너그럽고 평화롭게 변화시킨다.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한다. 1998년, 베이징(北京), 우한(武漢), 대련(大連) 및 광동(廣東)성의 의학 전문가들이 5번의 의학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파룬궁의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율은 98%로 나타났다.

사회에 유익하다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죠스(喬石)를 비롯한 일부 인민대표대회 정년퇴직 노간부들이 1998년에 파룬궁에 대해 진행한 조사에서 “파룬궁은 나라에든 백성에 게든 백가지 이로울뿐 한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울러 중앙정치국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흥전 세계

파룬따파는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져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라훙쯔 선생과 파룬따파가 인류 심신 건강에 대한 결출한 공헌으로 여러 나라 정부의 표창, 지지안과 서한 5,000여 건을 받았다.

천사 홍복

(天賜洪福)

| 하늘에서 내려 보낸 신사(信使) | 원촨(汶川)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나던 순간 |

| 규폐증이 사라지다 | ‘모르는 자’ 정말 무죄일까? |

담을 넘어 밍후이왕을 찾아보세요

自由門专业版 <https://j.mp/fgp88>

自由門安卓 VPN <https://j.mp/fgv88>

따스한 도움말 : 국산 웹브라우저로는 이러한 웹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IE, I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 사용을 권유합니다.

목록

- | | |
|--------------|---|
| 서두 일문 | 1 하늘에서 내려 보낸 신사(信使) |
| 구사일생 | 4 변종 코로나에 걸린 온 가족 기적같이 회복
7 그날 밤 9 시에 자살을 계획한 사람.....
10 한 차례 의외의 사고로 다시 태어난 생명
13 마비에 직면한 남편이 치료하지 않고 나았다
16 규폐증이 사라지다 |
| 탐색 연구 | 18 파룬궁 수련은 쌍방향으로 면역체계를 조절할 수 있다 |
| 평안 유도 | 19 큰 홍수가 닥쳤을 때 민간 기업주 신기하게 위험에서 벗어나다
20 건축 상인의 감사
21 원촨(汶川)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나던 순간
24 노 촌장은 천 리 먼 길까지 달려와 탈당하다 |
| 혜안 식진 | 26 전 중국 간호사 증거를 제시,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 은 조작
29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 조작한 자의 오늘이 옛날 |
| 인과 명견 | 31 암세포가 검출된 후, 공안국 부국장 꿈에서 깨어나다
33 '모르는 자' 정말 무죄일까? |
| 부록 | 3 '9 가지 평론'은 3 억 중국인의 중공 탈퇴를 일으켰다
17 '천고기서' 책 한 권이 세계 각 종족 역만 명과 인연을 맺다
23 '구자 진언'을 읽으면 우주 강력한 에너지 장과 연결한다
25 대기원 정중 성명 |



'모르는 자' 정말 무죄일까?

글/칭통(青桐)

흔히 모르는 자는 무죄라고 한다.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은 정말 무죄일까? 우리 다음 이야기를 보자.

석가모니가 세상에 불법(佛法)을 전할 때 어떤 제자가 그에게 '모르는 자는 무죄' 가 맞는지 가르침을 청했다. 석가모니는 대답 대신에 비유를 했다.

그는 "지금 불집게를 불에 달구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네가 이 불집게를 가지러 간다면 그것이 불에 달군 것을 아는 것이 피해가 심각하나? 아니면 불에 달군것을 모른는 것이 피해가 심각하나?"라고 말했다.

제자는 생각 끝에 "불에 달군 것을 모르기에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몰랐기에 준비도 없으니 뜨거울 땐 대책을 취할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석가모니가 상냥하게 말했다. "불집게가 불에 달궈진 줄 알고 가지러 가면 겁이 나고 경계심이 깊어 방심하지 못하고, 잡을 때 세게 잡지 않을 것이다. '모르는 자가 무죄' 가 아니라 모르는 자의 피해가 가장 크고, 고통받고 죄를 입는 것이 더 엄중함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해의 입장 속에서 혜매며 몰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흔히 우매하고 멍한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기 쉽다. 왜냐하면 분석을 통해 사건의 배경과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유식' 해야만 사람을 현명하게 하고, 진리를 찾게 하여,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뜨겁게 달군 불집게보다 몇 배나 더 심하게 사람을 해치고 있다! 중공을 멀리하면 재앙이 멀어진다고 누가 말해준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수십 년 동안 각종 운동을 하면서 최소 8천만 명의 중국 동포를 살해했고, 거짓과 폭력으로 통치를 유지하며, 대내적으로는 거짓으로 기만하고, 대외적으로는 봉쇄하고 있어 중국인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이 치밀하게 꾸민 감옥에 갇혀있다. 중공이 저지른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비로운 하늘은 '삼퇴'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을 중공이란 이 악마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탈퇴한 사람은 하늘의 가호를 받을 수 있기에 재앙과 멀리할 수 있다.

하늘이 사람에게 남겨준 천재일우의 구원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루 빨리 진상을 명백히 알고서 '삼퇴' 하고 평안을 지키기를 바란다. ◇

이 정말 법을 어기며 박해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그에게 또 하나의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공산당은 일당독재인데 내가 법을 어기면 또 어쨌단 말인가? 당신들 파룬궁은 죄가 없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법원은 여전히 당신을 판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때 그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 병원 검사에서 그의 체내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당장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에 대한 충격은 매우 커다.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주변에 몇 명 사람, 공안국의 동료, 파출소의 소장, 그리고 일반 경찰도 모두 다른 형식으로 죽었다. 그는 근심걱정에 싸여 “왜 모두 젊은 사람이 죽을까?”라고 생각했다.

점점 두려움이 몰려오자 그는 “선악에는 응보가 따른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라고 하던 파룬궁 수련생의 말을 떠올렸다.

병이 났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고 업보라는 말이 나올까 봐 참고 출근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아내(파룬궁 수련생)가 다시 탈당을 권유하자 그는 동의했다. 그 후로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국보경찰이 파룬궁의 진상 현수막을 내건 할머니를 납치해 구치소로 보내려 했다. 때마침 건명이 마주쳤는데 사촌 누나의 동네에서 탈당을 권유하던 류 씨가

아닌가?

그는 침착한 얼굴로 국보대장에게 “절차를밟으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국보대장은 “국장님,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지 말라는 것이지요!”라며 그의 말을 이해했다.

수년간 국보 경찰들도 진상을 어느 정도 알고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상급의 압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국장이 말을 했으니 마침 인정을 베풀어 주기

에 알맞았다. 그들은 차를 물고 류 씨를 데리고 구치소에서 수속을 하고는 류 씨 아들에게 그녀를 모셔가라고 알렸다. 류 씨가 떠날 때 국보대장을 설득해 중공 당조직에서 탈퇴하게 했다.

2019년 가을, 건명이 일보러 나갔는데 그의 부하가 전화로 그에게 상급에서 그들에게 파룬궁 수련생을 교란하라고 한다며 파룬궁 수련생이 서명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가고 물었다.

그는 들판마다 “왜, 이 일에 이렇게 열중하나요? 지금 어느때인데 아직도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그의 부하는 곧 알아차리고는 파룬궁 수련생의 집 앞에 이르자 노크도 하지 않고 문밖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갔다.

건명은 이제 회의 외에는 출근도 잘 하지 않는다. 특히 우한 폐렴으로 큰 전염병을 일으킨 후, 그는 파룬궁 수련생의 말은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더욱 믿었다. ◇



하늘에서 내려 보낸 신사(信使)

글/후이전(慧貞)

60여 세가 된 나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살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슬펐든지 기뻤든지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면서 담담해졌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나는 막 시집갔다. 정월이라 한 해 동안 바삐 보낸 마을 이웃들은 모두 이 기회에 편안히 놀 수 있게 되어 한 무리 부녀자들이 모여 마작을 했다. 그날 나는 늦게 갔는데 팀원이 딱 맞아 어쩔 수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마작을 몇 판 놀았는지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몰랐다. 내가 고개를 돌려보니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머리카락이 형틀어져 있고, 옷가지가 지저분했다. 그는 방 안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귀찮은 일을 당했는데 집에 돌아갈 돈이 없어 여기까지 동냥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의술로 진찰할 수 있으니 당신들 중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돈을 조금 주시면 저도 빨리 집에 돌아가 설을 썰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작에 흥이 난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다. “우리는 아프지 않으니 다른 집으로 가보세요.”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잠시 기다리다가 상대하는 사람이 업자 그는 바로 밖으로 나갔다. 이때, 둘째 숙모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돌이와요, 돌



아와서 저에게 봐주세요.”

그 사람이 몸을 돌려 둘째 숙모의 맥을짚었다. 그는 “당신은, 목이 막혀 죽을 것인데 기껏해야 단오절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게 묘방이 있는데 해 보실래요.”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이런 재앙이 생긴 건 당신이 하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피하려면 3년 동안 금식해야 하는데 고기 비린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방해 드리겠으니 보증코 나을 것입니다.”

둘째 숙모는 듣더니 “3년 동안 육식을 먹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다른 여인들은 모두 일어나 그를 육박지르며 말했다. “설에 무슨 불길한 말을 하나요 아주머니, 그의 말을 듣지 말아요, 자, 마작해요.”

둘째 숙모가 더는 상대하지 않자 그 사람도 잠깐 후 가버렸다. 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이 아닐 거로 의심해 감히 배웅하지 못했다.

정월이 지나자 둘째 숙모가 놀러 왔다가 말했다. “신기하네요, 이 목이 요즘 좀 조여 뭔가 막힌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의심하는 건 아니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아니요.”라고 말했다.

2월 말부터 둘째 숙모는 음식을 먹기 힘들어지자, 설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이 사람이 우리 집에만 올 리 없지, 마을이 크지 않아서 낯선 사람은 바로 눈에 띄어 어쩌면 누구 집에서 한 담했을 수도 있으니 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마다 물었지만, 마을에는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3월에 병원에서 일하는 둘째 숙모의 면 친척 조카가 왔다. 그녀를 데리고 가서 검사했더니 후두암 말기였다. 4월 말에 둘째 숙모가 돌아가셨다.

둘째 숙모의 죽음은 내게 매우 큰 충격을 주어 이후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나는 더는 누구도 경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정월에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마음 속에는 얼마 전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그날 집에 어린 여자아이 손님이 있는데 나의 어린 손녀에게 재잘재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에 빠져든 손녀는 이야기가 끝나면 또 하나 더 들려달라고 했다. 처음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후에 보살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한 마을의 사람들이 몹시 나쁘게 변해 하늘이 이 마을을 홍수에 잠기려 했다. 보살

은 동냥하는 노파로 변신해 구할 수 있는 선양한 사람이 있는가 보았다. 보살은 집집이 밥을 빌었는데 사람들은 밥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때리기까지 했다. 오직 착한 아주머니 한 분만 그녀에게 밥을 주었는데 보살은 이곳에 홍수가 난다는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 아주머니는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을 빨리 도망치게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결국 진짜 홍수가 났다. 일부 믿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사했다.

어린 여자아이의 이 이야기는 갑자기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둘째 숙모를 생각나게 했다. 둘째 숙모를 진찰했던 그 사람은 그녀가 하늘의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신이 자비를 베풀어 둘째 숙모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려고 신사(信使)를 파견해 일부러 그렇게 입고서 알려준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았는데 믿으면 그 재앙을 넘길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당시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린 여자아이는 나도 다가가자 내게 “지금도 천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늘이 개개인에게 똑같은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공산당은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했고 많은 좋은 사람을 죽였기에 하늘이 그것을 멀하려 합니다. 지금 도처에 천재와 인재가 있는 것은 모두 그것을 멀하려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진심으로 그것과 한 패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과 함께 멀망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그것의 조직에 가입했던 사람마다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탈퇴하면 그것



글/저우옌(周延)

암세포가 검출된 후, 공안국 부국장 꿈에서 깨어나다

파룬궁(法輪功) 박해에 적극 참여했던 공안국 부국장이 체내에 암세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자신의 ‘업무’를 진정으로 반성하기 시작했다……

건명(가명)은 50여세의 한 시 공안국 부국장으로 이른바 ‘사회 안정을 지킨다’가 주 업무였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뒤에도 그 역시 어쩔 수 없이 나쁜 사람을 도와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처음엔 파룬궁에 대해 몰랐던 건명은 상급에서 파룬궁 박해 임무를 계획하면 앞장서서 참여했다. 현지 파룬궁 수련생이 그에게 여러 차례 진상을 설명했으나 듣지 않자 그의 악행을 밍후이왕에 폭로했다.

해외의 파룬궁 수련생이 멀리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와 악을 버리고 선행을 권유했는데 이것은 그를 어느 정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어느 날 건명은 사촌 누나의 아이 결혼식에 참석했다. 결혼식에서 그는 사촌 누나 마을의 파룬궁 수련생 류 씨를 만났다. 류 씨는 그에게 다시는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권유하면서 파룬궁 수련생은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수련하는 좋은 사람이며 파룬궁은 불법(佛法)이므로 부처 수련을 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는 자신에게 좋지 않다고 알려주고 중공의 당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권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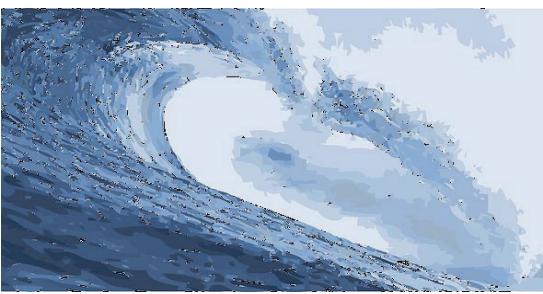
건명은 “저는 일을 해야 하므로 당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그는 탈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진상에 귀를 기울였다. 요 몇 년 동안 그는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은 매우 친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그가 현지의 한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러 사람을 데리고 갔었다. 당시 이 수련생은 집에 없었는데, 그녀의 10여 세 된 딸은 엄마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 나갔다. 그는 보고도 막지 않았다. 결국, 이 파룬궁 수련생은 납치를 면하게 됐다.

그 후에도 그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박해에 참여했지만 그다지 주동적이 아니었다.

2018년 건명은 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현지 법원의 불법 재판을 방청했다. 변호사가 이 파룬궁 제자를 위해 한 이치에 맞는 무죄 변호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꿈에서 깨어났다. 원래 중국 법에서도 파룬궁은 중국에서 전혀 불법이 아니었다. 다년간 자신



리동성 징역 15년

리동성, 장관급 고위 관료, 2016년 1월 12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 국가 라디오·영화·TV 방송 총국 부국장, 리동성은 당시 정법위원회 서기 뤄간(羅幹) 등과 함께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을 기획하고, CCTV의 ‘톈안먼 분신 자살’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전 과정에 참여해 감독 제작했다.

리동성은 자신이 주관하는 중앙TV ‘집중 탐방(焦点访谈)’을 이용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황금시간대에 반파룬궁 프로그램을 대거 방영한 것으로 추적 국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불완전 집계에 따르면 1999년 7월 21일부터 2005년까지 6년 반 동안 파룬궁을 모욕하는 프로그램이 102부작 방영됐다. 이 중 1999년 7월 20일부터 그해 말까지 5개 월여 만에 70편을 차지했다.

톈충밍 병으로 사망

톈충밍, 8년간 신화통신 사장을 지낸 그는 2017년 병으로 사망했다. 어떤 언론은 톈충밍이 급성, 이름 모르는, 살상력이 강한 독감에 걸려 갑작스럽고 무섭게 죽었다고 보도했다.

2000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신화통신 사장으로 재직했었는데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은 톈충밍의 임기 때 발생했다.

신화통신은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 후,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전 세계에 영어 신문 통고(通稿)를 보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신화통신의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에 대한 중문과 영문의 허위 보도는 세계언론 및 중국 언론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옮겨 전해져 진실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백성을 기만하고 독해했다.

뤄징 암으로 사망

뤄징은 전 중국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편집부 부 과장, 중국 공산당 17대 대표로서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특수수당’을 받았었다. 끄징은 2008년 6월 5일 48세의 나이로 림프암으로 사망했다.

뤄징은 생전에 중앙 텔레비전이 거짓말을 퍼뜨린 주요 집행자 중 한 명이었다.

1999년 7월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가 시작되자 끄징은 중국 공산당의 주요 나팔수가 돼 파룬궁을 모독하는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톈안먼 분신자살’ 거짓 사건을 거듭 보도했다.

천명 암으로 죽었다

천명은 중앙 텔레비전의 신문평론 부주임이자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의 ‘동방시공’을 주관했다. 나중에 중앙 텔레비전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의 제작자가 되었다.

2008년 12월 23일, 47세의 천명은 위암으로 사망했다. ◇

의 패거리가 아니므로 재앙도 당신과 멀어진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별생각 없이 말했다. “탈퇴할래요, 나는 소선대에 가입했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을 부리겠는가? 그냥 재난이 없는

것이 아닌가? 둘째 숙모와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어린 여자아이가 아무것도 겪어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늘이 내게 어떤 신사를 보내어 소식을 전해줄지 누가 알겠는가? ◇

‘9가지 평론’은 3억 중국인의 중공에서 탈퇴를 일으켰다



‘공산당에 대한 9 가지 평론’ 약칭으로 ‘9 가지 평론’은 2004년 11월 ‘대기원 시보(大紀元時報)’가 발표한 시리즈 사론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기만·폭력·사교(邪教)와 간달의 본성을 전면적으로 게시해, 한 세기 이상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준 국제 공산주의 운동, 특히 중공의 종말에 대한 최종 평가를 했다.

‘9 가지 평론’이 발표되면서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공산당원·공청단원·소선대 조직을 탈퇴하는 ‘삼퇴’ 고조가 시작됐다. 2021년 9월 현재 3억 8천 4백만 중국인이 대기원 탈당 사이트에 ‘삼퇴’ 성명을 했다. 현재 ‘삼퇴’를 선언한 인수는 하루 약 6만 명이다.

‘9 가지 평론’과 ‘삼퇴’에 대해 16년 동안 중공은 애써 봉쇄한 것 외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9 가지 평론’은 이미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나라에서 출판되어 ‘최소 100년간 영향을 끼친 공산주의를 투철하게 분석한 저서’로 불리고 있다.

삼퇴 성명 방법은 아래와 같다(진명, 가명도 똑같이 유효하다) :

● 해외 우편함으로 삼퇴 성명을 탈당 우편함에 보내다 :

tuidang@epochtimes.com

● 돌파소프트웨어로 대기원 탈당 사이트에 올라 삼퇴를 성명하다 :

tuidang.epochtimes.com 혹은 전세계 탈당센터사이트: tuidang.org
온라인에서 ‘탈당(단원, 소선대) 종서’를 받다.

● 전화 : 001-416-361-9895 혹은 001-514-342-1023

● 팩스 : 001-201-625-6301 혹은 001-510-372-0176

● 먼저 성명을 적당한 공공장소에 붙이고, 나중에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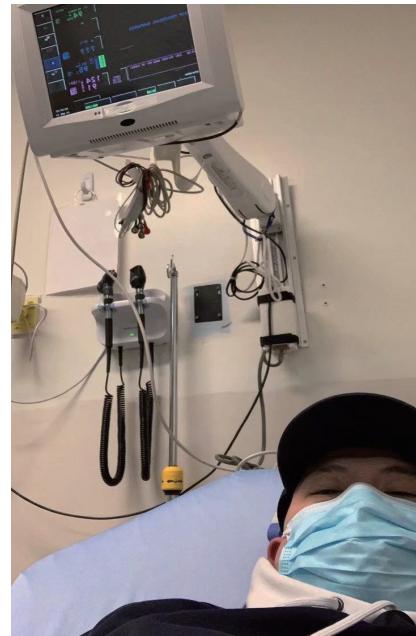
변종 코로나에 걸린 온 가족 기적같이 회복

2021년 3월 15일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주루이강(朱瑞剛) 씨 가족이 코로나19 영국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세가 계속 악화했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의료와 약물의 도움도 없이 주 씨 가족은 일주일 만에 완쾌됐다. 주 씨는 가족의 남다른 경험을 들려줬다.

온 가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다

주루이강, 41세, 2017년 9월 온 가족이 중국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왔다. 그는 올해 3월 11일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11일 저와 아들은 발열 증세를 보여 13일 각종 지표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15일 병원 검사 결과 코로나 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15일 이후 증상이 하루하루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는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라고 말했다.

"3월 19일, 저는 이미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가슴은 돌멩이에 짓눌린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혈 산소 포화도 90 이하면 중환자실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 지표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어서 병원에서 구급차로 저와 아들을 데려다줬어요."라고 말했다.



▲ 주루이강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위험할 때 연공하고 구자 진언을 읽고서 온 가족 완치되다

주루이강은 말했다. "집에 돌아온 후, 내 삶은 끝난 것 같이 이미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이때 갑자기 파룬궁(法輪功)이 생각났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부터 파룬궁을 알았었고 또 배운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중공의 박해가 두려워 포기했었습니다. 그 날 저녁(3월 19일)에 저는 파룬궁의 다섯 번째 공법(가부좌)을 하기 시작했고, 또 아들과 함께 '구자 진언(九字眞言)' ——파

것보다 이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베이징은 파룬궁과 여론전을 벌일 최신 무기로 몸이 타는 공포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03년 11월 8일 신당인 TV 방송국에서

제작한 '톈안먼 분신자살 진상'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위화(僞火)'가 각국에서 참가한 6백여 편의 영화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 제51회 콜럼버스국제영화방송페스티벌 영예상을 받았다. ◇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 조작한 자의 오늘과 옛날



류징(劉京) 전 공안부 부부장, 리동성(李東生) 전 국가 라디오·영화·TV 방송 총국 부국장, 텐충밍(田聰明) 전 '신화통신' 사장, 뤄징(羅京) 전 중국 중앙방송 '뉴스 커뮤니케이션' 진행자, 천명(陳虻) 전 중국중앙방송 '동방시공(東方時空)' 프로그램의 책임자 등 5명이 모두 불운을 맞았다.

이 다섯 사람은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20년 전 중공이 조직한 '톈안먼(天安門) 분신자살' 거짓 안건에 참여했었다.

류징이 암에 걸리다

류징, 중공 부급 고위 관리 후두암에 걸리다. 소식이 전혀 없어 생사가 불분명하다.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 류징은 '610' 사무실 부주임, 공안부 부부장

이었다.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해 8개월 후, 류징은 '610' 사무실 주임으로 승진했다.

'610' 사무실은 중공이 1999년 6월 10일 설립된 파룬궁 박해를 전담하는 불법 기관이다.

밍후이왕은 류징이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의 기획, 실행, 중오 선동에 직접 관여했다고 전했다.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01년 2월 27일, 류징은 특별히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파룬궁을 모함했다.

2002년 중국 새해를 앞두고 창춘(长春) 난후(南湖) 호텔에서 열린 파룬궁(法輪功) 탄압 배치 회의에서 류징은 "파룬궁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총을 쏠 수 있다" "무자비하게 죽여라"는 장쩌민의 비밀 명령을 구두로 전달했다.

“환자 눈에 거즈를 써우는데 자외선의 파란 빛이 각막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화상 환자가 녹농균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병원이 격리 복을 입지 않고 마스크,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화상 환자와 접촉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느 화상 병실에서 취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CCTV 기자가 자기 옷을 입고 마이크를 잡고 취재하는 것은 완전히 의학 상식에 어긋난 일입니다.”

류쓰잉이 멸구를 당한 것이 아닌가?

‘추적 국제’ (파룬궁 박해 추적 국제기구)는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 적수담병원의

‘분신자살’ 인원 치료에 참여한 의료진으로부터 분신자살 가담자 중 한 명인 12세 류쓰잉이 건강이 회복돼 퇴원하던 2001년 3월 17일 오전 베이징시 의정처 처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류쓰잉의 병실을 방문해 류쓰잉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당시 류쓰잉은 펄펄 뛰었다.” 고 한다.



이후 이날 낮 11시~12시쯤 의사가 갑자기 류쓰잉이 위독한 상태에 처한 것을 발견했는데 아주 빠르게 숨졌다.

사망 전날에도 류쓰잉의 심근 효소 프로필과 각종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고 한다.

조사에서 류쓰잉의 부검은 적수담 병원에서 이뤄졌지만 부검보고서는 응급센터에서 작성됐고, 보고서는 병 안 검토에서 발표되지 않은 채 심근의 문제라고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적 국제’는 류쓰잉이 중공 당국에서 비밀의 누설을 막기 위한 몰살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는 중공이 조작한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을 규탄

2001년 8월 14일 ‘국제 교육 발전조직’은 연합국 회의에서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중공 당국이 파룬궁에 들씌운 ‘국가 공포 주의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장옌(Ian Johnson) 기자는 파룬궁 이슈 보도로 2001년 풀리처 뉴스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례적으로 민첩하게 이 사건을 보도한 것은 그만큼 사건 발생 시기가 보도한

◀ 2003년 11월 8일 신당인 TV 방송국에서 제작한 ‘톈안먼 분신자살 진상’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위화(偽火)’가 제51회 콜럼버스 국제영화방송페스티벌 영예상을 받았다.

룬파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이미 내렸어요. 4, 5일쯤 될 때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숨도 가쁘게 쉬지 않았어요. 27일 병원에서 바로 복직 증명서를 받았는데, 저를 이미 다 나았다고 했어요.” 그는 말했다.

그러던 중 3월 20일쯤 주 씨의 아내 장 여사도 열이 나기 시작했다. 주 씨는 아내에게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나랑 같이 파룬궁을 연마합시다.”라고 말했다. 장 여사의 증상도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주 씨는 “약물 치료도 전혀 없이 가족이 모두가 나았습니다. 파룬궁이 저의 온 가족을 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파룬궁 수련을 포기

중국에서 주루이강은 파룬궁을 연마했다. 그는 말했다. “파룬궁을 실제로 접촉한 것은 부친 때문이었어요 2014년 7월, 부친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돌봐 드렸어요.”

“제가 외아들인 데다 아내가 아이를 돌봐야 하므로 아버지를 간호할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어르

신도 아들이 간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아들의 정신 상태가 매우 좋은 것을 보고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상태를 갖게 됐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저에게 파룬궁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때 처음 파룬궁을 접했습니다.”

“이 파룬궁 수련생은 저에게 연공과 ‘구자 진언’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를 가르쳐 주었어요. 보름 정도 연마했더니 몸과 정신이 크게 개선돼 잠을 잘 잘 수 있어 매일 정력이 왕성했습니다.”

“그동안, 이 파룬궁 수련생이 저를 데리고 함께 연공을 했어요. 그러나 1년도 안 돼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그만뒀어요.”

주루이강은 랴오닝(辽宁)성의 한 작은 도시에서 왔는데 국영기업에서 일했었다.

“그때 국내에서는 단속이 심했습니다. 우리 그곳은 작은 도시이므로 나중에 제가 연공 한다는 소식이 직장의 지도자에게 알려져 여러 번 사무실로 불려가 이른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여전히 파룬궁이 좋다고 굳게 믿었기에 나중에 사직당했어요. 이후에도 파출소에 ‘모셔가기’, ‘교육’, ‘차 마시기’를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당시 아들이 9살이고 4학년이었어요. 학교의 선생님들도 다 알고서, 반급의 다른 학생들에게 이 아이(내 아이)의 아빠는 파룬궁을 연마하니 그와 놀지 말라며 선생님이 반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그를 따돌렸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2017년 9월 가족 모두 출국했습니다.”

주 씨와 부인 장 여사는 “당시 파룬궁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에 근거 없는 죄명을 날조한 것이며, 우리는 일찍부터 중공의 사악함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사실 국내에서 파룬궁 박해가 시작할 때부터 파룬궁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와 아내는 CCTV의 이른바 ‘톈안먼(天安門) 분신자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허점을 발견했으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기관을 절개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사람이 불에 타는데도 자세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니. 휘발유를 담은 비닐 음료병도 타지 않았는데……조금의 상식이 있다면 누구나 똑똑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파룬궁을 새롭게 인식하고 견정히 수련하다

주 씨는 말했다. “이번에 온 가족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 저는 파룬궁에 대해



▲ 2021년 7월 17일 캐나다 토론토 파룬궁 수련생들이 진행한 반박해 시위행진에서 함께 22년 동안 지속된 박해를 제지하고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키자고 호소했다.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파룬궁이 저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 몸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파룬궁에 대해 의심 없이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연공하고 ‘전법륜’을 읽고 있습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 22년이 됐고, 파룬궁 수련생들의 평화적인 반박해도 22년을 걸어왔다. 주루이강과 아내는 지난 7월 17일 토론토 파룬궁 수련생들의 반박해 시위에 참여했다. 주 씨는 “저는 지금 파룬궁 신입생이 됐으니 꼭 꾸준히 수련해 나갈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이 있으면 제때 처리합니다. 병세가 변하면 즉시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원활해지고 상태가 거의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관을 뽑기를 고려합니다. 관을 뽑으려면 즉시 뽑을 수 없고 먼저 시험적으로 뽑아야 합니다. 기관 내관에 작은 나무 마개를 놓고 환자의 호흡 상태를 관찰합니다. 24시간 이내에 환자의 호흡이 정상적이어야만 관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절개한 피부를 훠매야 합니다.”

“류쓰잉이 기관을 절개하고 관을 뽑기 까지 겨우 나흘밖에 안 되는데 말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깊은 상처가 나흘 동안 아물 수 있겠나요?”라고 반문했다.

왕춘잉은 류쓰잉이 기관을 절개한 지 나흘 만에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기관 절개 수술 후 환자는 수술 후 회복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회복돼 퇴원 할 때 목소리가 모두 쉬어있기 때문이다.

“기관 삽관은 사람 성대에 해가 됩니다. 관을 뽑은 후, 환자는 말할 때 목소리가 아주 듣기 거북한 쉰 소리입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려야 발음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간호했던 기관 절개 환자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때 말소리가 정상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류쓰잉이 CCTV 기자와 만나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니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는 엄청난 웃음거리입니다.”

CCTV 기자는 왜 방호복을 입지 않고 무균 병실에 들어가 류쓰잉을 인터뷰했는가?



▲ CCTV 기자 현장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밍후이왕)

CCTV는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에서 무균 병실에 누워 있던 12세 소녀 류쓰잉의 화상 면적이 4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TV 화면에는 소녀의 몸에 두툼한 흰 거즈가 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CCTV 기자가 그녀를 취재할 때 격리 복을 입지 않았고 마스크, 장갑을 끼지 않았다.

왕춘잉은 화상 환자는 감염이 쉬운 편이기 때문에 화상 병실에서는 엄격한 소독과 무균 조작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저는 간호사로 일하며 화상 환자를 간호했었습니다. 화상 병실은 무균 격리 복을 입고, 무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쓸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했다.

“병실은 정해진 시간에 소독해야 합니다. 자외선 등 소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두 번 소독했는데 매번 30분간입니다.”라고 말했다.

“자외선 등은 침대 근처로 가져다 놓고 방안을 공기 소독해야만 합니다.”



전 중국 간호사 증거를 제시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은 조작

王春英

미국에 체류 중인 왕춘잉(王春英) 여사는 중국에서 30년간 전문 간호사로 일했었다. 요즘 간호사로서 전문 간호의 관점에서 해외 언론 '대기원'에 중공의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은 조작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2001년 1월 23일, 중국 설날 그믐날 중공은 5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이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분신자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의해 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 중공이 증오를 부추기고 박해를 유지하기 위해 파룬궁에 들씌운 세기의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류쓰잉(劉思影)은 왜 기관 절개 수술 4일 만에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가?

왕춘잉은 중국공산당 중앙TV가 방영한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 분신자 중의 류쓰잉이 기관 절개 수술 나흘 만에 말하고 노래한 것은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왕춘잉은 다롄(大連)시 중심 병원에서 20년, 현급 병원에서 10년을 근무했었다. 현급 병원에서 그녀는 많은 기관 절개 수술을 한 환자를 간호했었다. 그녀는 환자가 기관 절개 수술 후 복잡한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소개했다.

"기관 절개는 보통 호흡이 곤란하거나

위중한 병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 기관 관리를 해야 합니다. 6시간마다 기관 내관을 소독해야 합니다.

"기관 절개 수술 상처에 소독 거즈를 써옵니다. 거즈는 정해진 시간에 주사기로 항생제를 넣어 소독해야 합니다.

"환자는 기관을 절개한 뒤 전담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기관 내 가래와 구강 분비물을 끊임없이 빨아내야 합니다. 병상 옆에 가래 흡입 의기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환자가 기침이 나거나 구강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즉시 도관을 기관 내 관에 밀어 넣어 가래와 구강 분비물을 흡입합니다. 도관의 다른 한 쪽은 가래 흡입기에 이어져 있어 가래 및 구강 분비물을 빨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래가 많아지면 역류할 수 있어 환자는 질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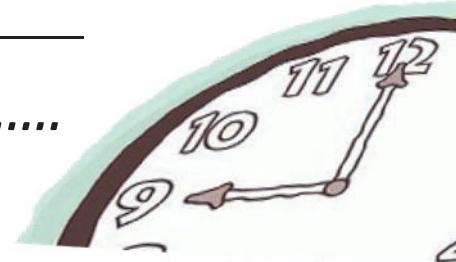
"기관 절개로 중환자이기에 환자는 중환자실에 있어야 합니다. 전문 간호사가 호흡과 생명체 증상을 관찰합니다. 무슨 상황

기관 절단 삽관 설명도



그날 밤 9시에 자살을 계획한 사람.....

글/따루(大路)



39세 되던 해에 나는 이미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두 차례 뇌 혈전을 앓아 한쪽 다리를 걷지 못하고 한쪽 팔은 바구니를 걸었듯이 구부리고 있었다. 약이 맞지 않아 중독되어 얼굴이 파란불처럼 푸르고 온몸이 부었다. 낙엽은 결국 뿌리로 간다고 1999년 4월 친척들은 이미 구제할 방법이 없는 나를 동북에서 당산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음으로 나는 당산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산에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죽을지도 모르니 좀 더 기다려 보고 싶었다. 친척들은 내가 뭘 기다리려고 하는지, 나도 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어렴풋한 느낌이었다. 5월 초가 되자 병통에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

그날은 5월 9일, 죽을 무렵에 잠깐 정신이 맑아지듯이 나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내려 일어섰다. 아내는 내가 나아지는 줄 알고 기뻐서 내가 먹고 싶은 국수를 만들었다. 국수를 먹고 나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거리로 걸으며 세상을 다시 보고 싶었다. 병아리가 즐겁게 뛰놀고 담장 밑에 오가는 개미들도 잘 사는 걸 보자 또 그런 삶의 희망이 솟구쳐올랐다. 에이! 겨우 39살인 한창 장년으로 아이가 아직 어린데 무덤에 간다니?!

"따루(大路), 왜 나왔어?" 이웃집 송 씨 형이 나를 보고 인사했다. "예, 밖을 구경하려고요."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이때 나는 이미 기력이 다 떨어졌다고 느꼈다. 사람은 임종에 '호흡이 한때 끊기'는 단계가 있는데, 그 숨을 쉬지 못한다면 죽는다. 나는 내가 지금 호흡이 한때 끊어지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기력이 약해 몇 마디 말도 할 수 없이 몹시 힘들었다.

"형님네는 지금 비디오를 보고 있으니 가보세요!" 송 씨 형이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다. 지금의 비디오는 모두 색정 영화, 액션 영화라고 생각했기에 보고 싶지 않았다. 더군다나 오늘 밤 나는 죽자고(그날 밤 9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고통을 종결하려 했다) 했는데 그런 것을 볼 필요 없었다! 그래서 걷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 씨 형은 웬지 아주 열정적으로 걷지 못하면 나를 업고 가겠다고 했다. 거절할 수 없어 송 씨 형의 부추김을 받으며 비디오를 보러 갔다.

형님댁에 도착하니 온 방의 사람들이 비디오를 보고 있었는데 거의 끝날 무렵인 것 같았다. 사람들이 환자인 나를 싫어하지 않자 바로 앉아서 보았다. 액션 영화도 아닌 강좌였는데 보기 시작했다.

병이 중태에 빠진 사람이라 강의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강의하는 사람이 어쩐지 매우 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텅산

(唐山) 대지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나는 당산 대지진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온몸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는데 한 줄기 뜨거운 흐름이 정수리에서 내려오며 전신을 관통하더니 새우등 허리가 곧게 펴졌다. 1998년 뇌 혈전으로 입원했을 때 당시 웬선(元神) 이체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강의자가 하신 말씀과 똑같았다. 비디오가 곧 끝나게 되었는데 나는 더 듣고 싶어 형님한테 좀 더 듣자고 부탁했다. 그런데 비디오를 온종일 켜놓아 기계가 가열해 안 된다며 큰형은 내일 다시 오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오늘 밤 죽자고 했으니 기다릴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뒷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나를 보고 의아한 기색을 보였다. 나는 궁금했다. 왜 그렇게 나를 보고 있을까? 그러나 별생각 없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비디오의 내용을 계속 회상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도 잘 말하는 데다가 친근해 보여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 좋은 것을 봤어요!” 아내는 “얼른 돌아가서 계속 봐요”라고 했다. 내가 “형님 집의 비디오를 틀 수 없대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형님한테 책이 없냐고 물어봐요?”라고 말하자 “그렇지!” 하며 나는 형님댁으로 달려갔다.” 큰형은 내가 급히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의아해했다. 내가 “아까 본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더니 형은 ‘파룬궁(法輪功) 설법 비디오이며 강의하신 분은 리홍쯔(李洪志) 선생님이십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책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형님은 흔쾌히 ‘전법륜(轉法輪)’ 책을 빌려주었다.

책을 품에 안고 집에 오자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줄곧 보았다. 이 기간에 거의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로 갔는데 배설물은 모두 누런 푸른색이었다. 긴 시간 앉아 있

어도 팬찮은 것을 본 아내가 불렀는데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밥을 먹으라 해도 먹지 않고 잠을 자라고 해도 자지 않았는데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오늘 밤 목숨을 끊겠다고 계획한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밤 1시가 넘자 아내는 너무 늦었다며 쉬라고 했다. 그제야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으나 책은 품에 안고 있었다.

아내가 책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아내가 책을 잃어버릴까 봐 굳이 책을 끌어안고 자겠다고 우겼다.

이렇게 매일 책을 읽었고 여섯 번 읽는 데 21일이 걸렸다. 아내는 내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봤는데 기체를 방출했듯이 전신의 부기가 사라졌다. 청신호 얼굴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도 자신의 변화를 발견했다. 원래 바구니를 걸었듯 했던 팔은 비디오를 본 당일 정상으로 회복되어 뒷짐을 질 수 있게 됐다. 걷기도 힘들지 않고 먹고



계발을 받았었다. 그는 자신이 ‘파룬따파하오, 쪐싼란하오’를 묵념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친지 친구에게 모두 구자 진언을 외우라고 전했다. 기적이 다시 일어났다. 이 아홉 글자를 묵념한 사람 중 한 명도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았다. 장 씨는 파룬따파에 더 없이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탈당 소망도 더욱 강렬해졌다.

올해 설날그믐 날, 그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그의 이 친척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친척이 얼마 전 소개로 나의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었다. 내가 파룬궁의 진상을 알려주고는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을 탈퇴하고 또 ‘파룬따파하오, 쪐싼란하

오’라고 성심성의껏 외우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돌아가서 곧 회복됐다.

장 씨와 통화할 때, 이 친척은 건강을 회복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장 씨는 듣고 엄청나게 좋아하며 급히 내 주소를 물었다. 전화를 끊은 후 장 씨는 곧 우리 시로 오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그는 친척 집에서 하루 이틀 머무르고 나서 바로 차를 타고 나를 찾아왔다. 내게 즉시 대기원 탈당 사이트에 탈당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스스로 자신의 가명을 지었다.

이것이 노 촌장이 탈당을 위해 천 리 먼 길을 달려온 이야기다. 선량한 사람들이 갈수록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중공 사당이 해체되는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

대기원 정중 성명

광대한 중국 민중들이여 : 공산당의 종말이 곧 닥쳐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악한 당(마교)은 역사상 중생에 대하여 신불에 대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지었으므로 신은 꼭 이 악마를 청산할 것이다.

만약 어느날 신이 인류의 누구를 지시하여 공산당에 대해 청산할 때 꼭 이른바 견정한 사악한 당원들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중하게 성명한다: 모든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가 새겨짐)에 참여한 사람들은 빨리 탈퇴하여 사악의 기호를 지워버리라. 일단 누가 이 마교를 청산할 때 대기원에 저장한 기록은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성명한 사람들을 위해 증명을 설 것이다.

천지자연의 법칙은 넓은 그물과 같아서 어떤 죄인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선악은 분명하며 고생은 끝이 있고 생사는 일념에 달렸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가장 사악한 마교에 기만당한 사람과 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 사람들이여, 조금만 늦추어도 지나가 버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란다!

대기원

2005년 1월 12일



노 촌장은 천 리 먼 길까지 달려와 탈당하다

글/조후이(朝晖)

나는 의사로서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한 지 여리 해 되며 스스로 진료소를 꾸렸다. 올해 정월 초삼일 오전,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서둘러 진료소에 들어왔다. 광동(廣東) 말투의 표준어로 장(張) 씨라며 광저우(廣州)에서 특별히 우리 도시까지 비행기를 타고 전전하며 나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를 도와 탈당을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광저우에서 여기까지 무려 천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나는 “우리는 안면이 전혀 없는 사이인데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왜 멀리까지 저한테 와서 탈당하려고 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장 씨는 사실의 전후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 씨는 원래 광저우의 한 시골 마을의 촌장으로 젊은 시절에 공산당에 입당하여 몇십 년의 당령을 가진 노 당원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퇴직했다.

7년 전 누군가 그의 집 문가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한 권을 놓았었다. 장 씨는 진지하게 이 책을 다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산당의 사악한 잔학함을 똑똑히 보았고, 파룬궁 수련생이 모두 좋은 사람인 것을 알았고, 공산당이 왜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는지 알게 됐다. 공산당은 ‘거짓(假), 사악(惡), 투쟁(鬥爭)’

을 송상하기에 ‘진, 선, 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파룬궁 수련생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장 씨가 책 뒤에 부록으로 쓴 ‘대기원 정중 성명’을 보고 나서, 파룬궁 수련생을 찾아가 탈당을 도움받으려는 생각이 들었다. 장 씨는 공산당의 모든 조직을 탈퇴해야만 훗날 공산당의 죄악을 청산할 때 연루되지 않고 신불(神佛)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장 씨는 파룬궁 수련생을 만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줄곧 기대하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몇 년을 기다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이 바람은 사라지 기는커녕 오히려 강렬해졌다.

지난해, 우한(武漢) 폐렴이 확산해 광저우까지 번지기도 했다. 장 씨가 있는 시골 마을에도 일부 사람이 코로나 19에 감염돼 사람들이 몹시 공포에 떨었었다. 운 좋게도 장 씨는 또 한 번 파룬궁 수련생이 그의 집 문가에 놓은 진상 전단을 얻게 됐다. 전단에는 역병을 피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성심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란 아홉 글자를 읽는 것이었다. 전단에는 우한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 중 하나가 소개됐었다.

장 씨는 전단에서 서술한 사례에서 많은

마실 수 있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책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깝기도 했다. 이것은 아주 진귀한 보물이기에 다른 사람도 내게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비싼 값으로 사고 싶어 집에 있는 모든 현금 4,200위안과 가옥 증서까지 꺼내 형님 집에 책을 ‘사래’ 갔다.

형님 댁에 도착하자 형님에게 “집에 있는 돈이고, 가옥 증서도 가져왔으니,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십시오.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아르바이트하고 천천히 갚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형님에게도 여분의 책이 없었다. 하지만 형님은 인색하지 않고 “계속 책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다. 책을 사지 못한 내 마음은 매우 초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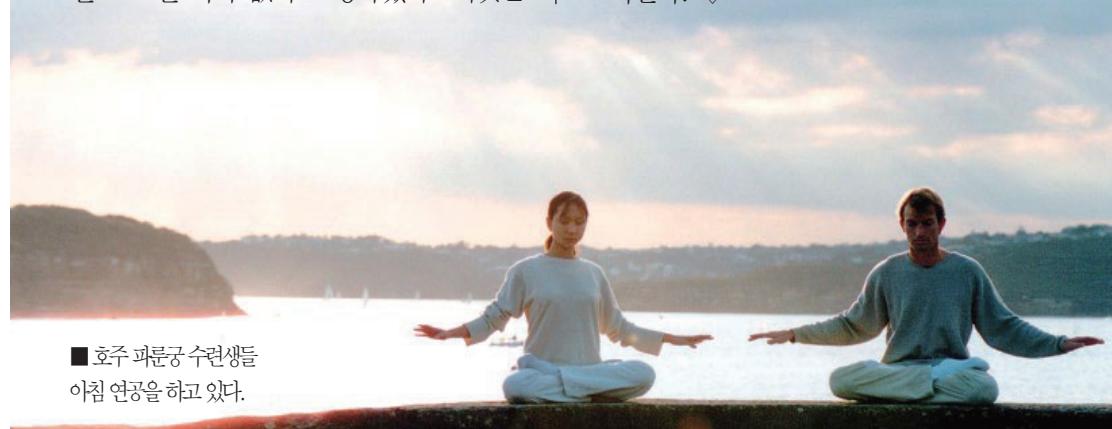
나중에 마을에 파룬궁을 수련하는 이 씨 아주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4,200위안과 가옥 증서를 들고 책을 사려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이 씨 아주머니는

“‘전법륜’은 겨우 9위안이며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어요. 마침 집에 남아 있는 책 한 권이 있어요.”라며 내게 책을 주었다. 나는 이 아주머니가 나를 속이는 줄 알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아주 진귀한 보물인데, 어떻게 겨우 9위안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때부터 보서(寶書)를 얻은 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나 행복한 수련의 길을 걷게 됐다.

불과 한 달여 뒤인 7월 20일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만약 7월 20일 전에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중공의 박해가 시작돼 파룬궁 서적을 완전히 훼손하고 파룬궁 수련생의 연공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아 수감했으니 내가 파룬궁을 접할 기회가 없게 되어 필연적으로 죽었을 것이다. 파룬궁의 책 ‘전법륜’은 아주 진귀한 보물이자 목숨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다. 전 중국에 나처럼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들이 모두 파룬궁을 알고 파룬궁을 수련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중공이 책을 훼손하는 것은 수많은 생명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사람들이 모두 파룬궁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고 이 아주 진귀한 책 ‘전법륜’을 읽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



■ 호주 파룬궁 수련생들
아침 연공을 하고 있다.

의외의 사고로 다시 태어난 생명



글/선풍(沈容)

18년 전 스물두 살의 뤄리후이(羅立惠)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동경을 안고 대만 난커(南科) 전자 산업에 입사해 시간과 달리기 생활을 하며 속세에서 분투했다.

암에 걸려 인생을 되돌아보다

많은 사람은 과학 기술 업계의 사람들이 수입이 많다고 부러워하지만, 리후이는 오히려 매일 12시간 이상 작업해야 했다. 밤을 지새우며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큰 압력 하에서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위해 필사적으로 써워야 하는지를 한탄했다. 단지 금전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였던가?

“저는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벌면 미래에 조기 은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직거래를 접하게 됐어요. 돈도 벌고 건강식품에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상상하면 완벽하지 않은가? 그래서 전자업을 그만두고 직거래를 하게

됐어요.”

일하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총력을 기울여 불과 3년 만에 리후이는 직급이 급상승했다.

“하지만 수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간의 추악 적인 면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랫사람을 밟고 위로 올라는 갓지만 모든 파트너를 데리고 함께 성공하지 못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을 벌었지만, 친한 친구가 틸락한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3~5년 일하고 평생 즐기자”는 꿈은 서로 빼앗고 서로 속고 속이는 현실 속에서 환멸 됐다. 리후이가 도덕과 성취 사이의 선택에 허덕이고 있을 때, 건강검진에서 그녀는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리후이가 말했다. “그때 어떤 의사가 물었어요. 암 몇기에 걸렸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당신은 이미 말기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충격은 30대의 여자로서는 너무나도 심각했다. 리후이는 육신의 충격을 뼈저리게 느끼며 죽음에 가까워지는 자신을 경험했다. 그녀는 말했다. “병원에서 전기

'구자 진언'을 읽으면 우주의 강력한 에너지 장과 연결한다

지금 갈수록 많은 사람이 성심성의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쪐싼란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사악한 것을 쫓아내고 바른 것을 바로잡아 위험한 상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구자 진언(九字真言)’을 정성껏 읽는 것을 통해 전염병에서 치료하지 않고 나았거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됐다.

구결(口訣)을 읽으면 왜 이렇게 큰 효능이 있는가?

현대 과학자들이 사람의 정신 활동에 대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대뇌에서 발생하는 사유, 언어 활동도 전기, 자석, 화학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 물질의 운동과정이다. 사람의 정신, 사유와 언어는 모두 물질과 에너지 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람의 육안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존재하는 물질 활동이다.

사람들이 어떤 주문과 문구를 외우느냐에 따라 우주에 상응하는 고에너지 장이 공진(共振)하고, 동등한 주파수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끌어당겨 효과를 낸다.

중국 전통문화 중 특히 불(佛) · 도(道) 양가는 역대로 주문을 외워 병을 제거하고 재난을 면한 선례가 적지 않다.

구자 진언 ‘파룬따파하오, 쪐싼란하오’는 불가(佛家)의 수련 공법——파룬궁(法輪功)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파룬궁에 매우 강하고 사람 건강에 유익한 고에너지 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많은 파룬궁 수련자에게서 수많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달성할 수 없는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한 신비한 효과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성심성의껏 ‘파룬따파하오, 쪐싼란하오’를 외우고 싶을 때, 우주에 고에너지 물질 장이 존재하고 우주 고에너지 장과 공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우주에서 온 강력한 궁정 에너지가 읽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자신의 면역력과 에너지 장을 증강해줌으로써 병을 제거하고 액을 없애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자 진언을 읽는 것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파룬궁의 진언(구결)을 활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파룬궁 수련은 수련자의 심성과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코 진언만 외우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

샤오징이 파룬궁을 저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 아들이 다년간 파룬궁을 수련해 왔기 때문에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하자, 중공 인원에 자주 교란을 당했고 불법으로 노교소에서 박해받아 우리 집은 이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임신 당시 만삭인 전날에도 납치된 남편을 만나러 현지 '610'에 갔다가 횡포한 경찰에 밀려 넘어질 뻔했다. 손자가 태어난 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불법 수감된 남편을 뵈러 갔었다. 경찰이 집 아래층에서 일 년 내내 우리 집을 감시하고, 폭력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이닥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혔다.

그날 샤오징은 동료와 즐겁게 놀았다. 그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산이 흔들리고 산지가 순식간에 하나하나의 물짜기로 갈라졌다. 산꼭대기에서 울부짖는 소리, 비명, 돌이 뛰구는 소리가 뒤섞였다. 유람객들은 허둥대며 이리저리 뛰다가 몇 걸음 못 가 돌무더기가 누르고 지나가는 산사태가 났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매몰됐다.....

샤오징과 동료는 눈앞의 광경에 넋을 잃고 있다가 시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라 동료의 손을 잡아끌며 말했다. “저와 함께 파룬따파하오를 읽어요.” 샤오징은 최선을 다해 웨쳤다.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 동료도 따라서 외쳤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돌들이 마치 눈이 있듯이 그녀 둘을 비켜갔다. 그들 둘은 나무 등지를 찾아 피하고

는 끊임없이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라고 외쳤다.

얼마가 지나서야 지진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방금 온 산에 유람객 중에 그녀 둘만 조금의 부상도 없었다. 방금까지도 칭찬하던 아름다운 기봉 경치였었는데, 지금은 마치 인간 지옥 같았다. 사방에는 널려있는 돌과 낭떠리지고, 산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는데 온전하지도 않았다. 어떤 시체는 머리와 몸집이 다른 곳에 있고 어떤 것은 놀라서 땅에 주저앉았다. 샤오징의 동료는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과 파룬따파의 신기함에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받았다.

그 사이 우리 집과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사망자 명단’을 알아보기 위해 한 번 또한 간신히 갈팡질팡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다. 마침내 모두가 하루가 일 년 같았던 가운데 겁난을 겪고 살아남은 샤오징을 맞이했다.

샤오징의 동료는 집으로 돌아간 후 직접 겪은 신기한 경험과 보았던 처참한 광경을 친지 친구들에게 한 번 또 한 번 이야기했다. 더욱이 샤오징은 감격스럽게 신변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벗어난 경과를 알렸고 듣고서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파룬따파가 사람을 구하는 불법(佛法)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도나도 생명을 구하는 구자 진언 —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를 적었다. 또 많은 사람이 ‘삼퇴’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를 하고 중공의 사악한 조직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밝은 미래를 선택했다. ◇

치료와 화학치료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정말 사람이 아프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함으로써 육체를 완전히 의사 간호사에게 맡기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재산에 대한 뒷일을 모두 분부해 놓고 언제 가야 할 것 같으면 그때 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놓고 갈 수 없습니다. 다 큰 자식이 병으로 가족들을 걱정시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인생이 무상하다고 한다. 큰 병으로 인해 명리를 쫓던 리후이는 병석에서 자신이 평생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됐다.

“직거래에서 명리에 들떠서 성공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부단히 돌진해 나가 이제 막 인생의 첫 번째 금 단지를 벌어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강을 잊고 보니 과거에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돈, 이를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몇 년간

벌어들인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광이 보이다

가장 연약하고 어두운 나날에, 친지와 친구들에게서 각양각색의 건강관리 비법을 소개받은 그녀는 그 중에서 파룬궁(法輪功)의 빛과 청결을 보았다. 리후이는 “큰이모가 나에게 파룬궁을 추천해줬는데 나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큰이모는 파룬궁은 돈을 받지 않고, 예물을 받지 않으며, 무보수로 공을 가르치는데, 사부님께서는 오로지 네가 위로 선으로 향하는 마음만 보고 있다고 했어요. 큰이모의 말씀에 저는 마음속으로 와쳤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야!”라고 말했다.

하루하루 파룬궁을 배우면서 어느새 리후이의 몸은 회복되고 암은 사라졌다. 이



▶ 건강을 되찾은
뤼리후이는 ‘전법
륜 (轉法輪)’ 을
읽고 있다.

와 함께 그의 인생관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밑에서 먹고사는 데 걱정 없이 자랐어요.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얻을 수 있어 강한 개성을 키웠기에 다들 내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수련을 시작한 지 몇 년 전만 해도 파룬궁의 합의를 잘 몰랐고 안에서 찾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배우고 독서를 함에 따라 모순과 마주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찾는 것을 알게 됐어요.”

리후이는 “예전에는 저에게 충돌하는 일이 생기면 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누군가 어찌고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 어차피 잘못한 건 남이라며 자기만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떠오르는 일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덧붙여 말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리후이는 절체절명의 암 말기 환자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모르는 친구들은 그녀가 일찍이 죽음의 문턱에서 벌써 등을 쳤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서른 살 때부터 파룬궁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마흔 살인 제가 오히려 젊은이처럼 보이고, 젊었을 때보다 몸 상태가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업무 관계로 아무리 잠을 잘 자려고 해도 잘 자지

못해 매우 피곤했어요. 기운이 없어 몸이 쉽게 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분이 상쾌하고 얼굴은 붉고 윤기가 납니다.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며 ‘네가 연공을 참 잘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다

리후이는 암에 걸려 밤낮으로 고통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자신에게 물었다. “왜 나였을까?” 인생의 고난을 겪고 서 지금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에 와서 지난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제가 갑자기 왜 이 병이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하느님은 이런 식으로 저를 멈추게 하려 하신 것은 세상에 남아 있는 의미를 새롭게 점검해 진정한 길을 찾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래 제가 추구했던 것은 모두 제 삶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룬궁을 수련하고서야 비로소 그런 것들은 모두 가장 표면의 허황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충격에 직면했을 때, 저는 더는 막막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든든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인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이에 저절로 빠졌다. 나는 호흡이 원활해서 산소관을 다시 콧구멍으로 끌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보고 아내, 여동생, 큰이모 세 사람은 기뻐하며 웃었다. 나와 아내,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모두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그날 이후로 큰이모는 매일 병원에 나를 보러 오셨다. 몇 번이고 음식이나 과일을 가지고 오셨다. 큰이모는 내 침대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진상 방송, 예를 들면 ‘구사일생’,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등 녹음을 들었고 함께 구자 진언 — ‘파룬따파하오, 쩐싼란하오’를 읽었다. 병세는 하루하루 호전되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 주치의는 기쁘면서도 놀라운 표정으로 내게 “퇴원해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퇴원하는 그날은 마침 추석이었다. 큰이모는 월병과 자신이 만든 물만두를 가지

고 병원에 와서 나와 인사를 나눴다. 나는 월병을 맛보며 눈물을 흘렸다.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파룬궁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셔서 다시 월병을 먹게 됐다.

내가 이모에게 감사표를 표하자 이모는 말했다. “우리 모두 파룬따파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저도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전에는 약골이었는데 이 목숨도 사부님께서 주셨습니다. 파룬따파 사부님은 우리 모두의 은인이십니다. 오늘은 추석이라 우리 두 손을 모아 합심하고 사부님께 추석 안부를 드립시다!”

퇴원해 고향에 돌아온 나의 건강 상태는 갈수록 좋아졌다. 큰이모는 여전히 내 상황을 염려하면서 내게 새로운 진상 자료를 보내왔다. 두 달 후, 병원에 가서 재검사했더니 지표가 완전히 정상이었다.

목숨을 구하는 ‘구자 진언’ —— 파룬따파하오, 쩐싼란하오를 나는 매일 읽고 있는데 계속 읽을 것이다. ◇

원촨(汶川)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나던 순간

글/고잉(高英)

2008년 5월 12일, 내 며느리 샤오징(小靜)이 공무로 원촨에 회의하러 가게 됐다. 이번 기회에 동료와 청성산에 놀러 가고 싶었다. 떠날 때 내 남편이 말했다. “정아, 외출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위험에 처했을 때 꼭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란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워야 한다.” 그러자 샤오징은 “알았어요.” 라며 짜증을 냈다.





건축 상인의 감사

글/하이상(海祥)

나는 올해 42세로 풍경이 아름다운 원난(云南) 성 시솽반나(西雙版納)에 산다. 몇 년 전에, 나는 내륙에서 아파트 건축 공사를 청부 맡았다가 불행히도 백혈병에 걸렸다. 생명이 위독할 즈음에 파룬궁 수련생이 보내온 진상 자료를 보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이 구자 진언을 외웠기에 재난이 복으로 바뀌었다.

2018년 가을, 내륙의 한 시내에서 빌딩 건축을 청부 맡고 있었다.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으로 판정이 났는데 이미 말기였다. 나는 즉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고향의 아내와 여동생도 서둘러 와서 나를 간호했다.

입원한 지 한 달여 만에 십여만 위안을 썼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심해졌다. 몸이 극도로 허약해져 말소리는 마치 모기 울음 같았다. 링거, 산소 호흡, 수혈 모두 소용없었다. 추석이 다가오자, 나는 올해 8월 15일의 월병은 내 몫이 없다고 생각했다. 타향의 병상에서 시

시각각 죽음이 다가올 때의 두려움과 고통, 슬픔과 절망을 이겨 내야 했다.

공교롭게도 입원 치료 중에 나는 이 병원의 여의사를 만났는데, 그녀와 나는 같은 고향인 반나(版納) 사람이었다. 몇천 리 밖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니 유달리 친절했다. 그녀는 나를 동정하고 관심을 가지며 그녀의 언니까지 데리고 나를 보러 왔다. 그녀의 언니는 70여 세가 되었는데, 나는 그녀를 큰이모라고 불렀다. 큰이모는 반나에서 자랐으며, 후에 남편을 따라 내지에 정착했다고 한다. 큰이모는 파룬궁을 수련한 지 여러 해가 됐다.

큰이모는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과일과 진상 자료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고향 사투리가 짙게 남아 있었는데 상냥하고 친근해 정말 듣기 좋았다. 큰이모는 내게 파룬궁의 신기한 아름다움을 소개해 주셨다.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본 지역 실재의 인물과 사실을 들려주셨다. 그녀의 소개를 들으니 죽음의 문턱에 있던 나는 오랜 기품에 시달리던 별모가 단비를 만난 듯했다.

큰이모가 왔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서 고개를 들 기운조차 없었다. 큰이모가 하신 말씀은 나로 하여금 삶의 희망을 보게 했다. 나는 큰이모의 말대로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라고 지체 없이 읽기 시작했다. 처음 읽을 때 목소리가 가냘팠다. 읽다 보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또 기운이 생겨 또박또박 읽었다.

한 시간여 후, 나는 무의식중에 일어나 앉았다. 내 콧구멍에 꽂힌 산소 관도 어느

마비에 직면한 남편이 치료하지 않고 나았다

글/옌핑(燕萍)

수술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비될 것이고, 수술하면 집에는 돈을 모을 곳이 없었다.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마비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년 전에 나와 남편은 이런 곤경에 처했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 앞에 전기가 나타났다. 신기한 변화를 몸소 경험한 후,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됐다.

나와 남편은 작은 장사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 2009년 겨울, 허베이(河北) 성 스자좡(石家莊) 시내에 눈이 엄청나게 내렸는데 한 자 남짓한 두께로 기차와 자동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남편은 스자좡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어쩔 수 없이 한 주간 체류했었는데 바짓가랑이 랑 신발이 흠뻑 젖었었다. 같이 갔던 친구들은 모두 솜 신을 사서 갈아 신었지만, 그이는 돈이 아까워서 사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 빨이 불편해지자, 그가 다시 솜 신을 사려 할 때 신발 가격이 이미 십여 위안에서 이십여 위안으로 올랐다. 그는 더욱더 사기가 아까워서 억지로 일주일 동안 젖은 신발을 신고 있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 이후로 남편은 빨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다리도 저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심해져 두 다리는 질질 끌며 얼마 걷지도 못했다. 저림이 심할 때는 감각이 없어 걷다가도 넘어졌다. 그는 온종일 근심 걱정에 잠겨있었다.

현지 병원에 갔더니 목뼈와 허리뼈 모두 증식했다며 남편에게 견인을 시켰는데 열흘에 한 번씩 치료해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 후에 장자커우(张家口) 시에 가서 핵 자기 검사를 한 결과, 경추 2, 3, 4 절 증식, 4, 5 절의 수종, 5, 6 절 변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비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들판마자 맥이 빠진 남편이 의사에게 물었다. “보수적 치료는 안 되나요?” 그는 수술이 잘못될까봐 두려웠다. 의사는 “수술로 나을 수 있다면 좋겠고, 만약 수술하지 않는다면 궁정코 반신불수가 되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바로 처방전을 찾기 시작했다. 180 위안짜리 약을 하루에 한 병씩 며칠 동안 먹었지만 여전히 낫지 않았다. 물리치료, 전기 치료, 민간 처방도 다 썼는데 오히려 갈수록 심해져 겉자면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다.

급해진 남동생은 밤새 형을 데리고 베이징(北京) 301 병원에 갔는데 수술은 필수

였고 빼를수록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병원에 침대가 없었다. 의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며 침대가 있을 때 그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며칠 뒤 내가 퇴근하자마자 남편이 말했다. “베이징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일 베이징에 오라며 모레 수술을 안배했다고 했어요. 병원 측에 돈이 부족하니 돈을 다 마련한 후에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가 수술하고 싶지 않아 이유를 찾아서 수술을 미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병이 이렇게 지연되어도 안 되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녁에 친정 오빠가 와서 나와 남편이 근심스러워하는 얼굴을 보고 남편에게 “당신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고, 잘한다는 의사에게도 진찰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당신이 또 수술은 하려 하지 않으니 이제 당신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파룬궁을 연마해 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래,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파룬궁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남편이 병이 난 동안 남편에게 파룬궁을 연마시키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파룬궁에 대한 TV의 ‘비판’을 보면 가짜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몹시 두려웠다. 게다가 누구누구는 파룬궁을 연마한다고 끌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파룬궁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당신이 크고 작은 병원도 다 갔었고, 처방도 써봤고, 수술도 안 하겠으면 파룬궁을 배워봅시다! 일흔이 넘은 저의 어머니는 파룬궁을 하고 난 후부터 병에 걸려 본 적이 없으셨고, 저의 오빠는 허리가 아파서 무슨 수를 다 썼어도 결국에는 파룬궁을 연마하고 비로소 나았는데 지금껏 잘 지내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머뭇거렸다. 그도 파룬궁에 먹칠한 텔레비전의 보도에 놀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오빠는 그에게 “파룬공은 불가(佛家)의 수련 공법이며, 연공하는 사람은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100여 개국에 전파돼 억대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 정부가 파룬궁을 표창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만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어요. 공산당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요?”라고 반문했다.

남편은 끝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파룬궁을 연마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빠는 기뻐하며 대뜸 내게 물었다. “몇 년 전에 준 책 ‘전법륜’은 아직 있느냐?” “네,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 ‘전법륜’은 5년 전에 우리 엄마가 내게 잘 좀 보라고 주신 것이다. 당시 엄마를 따라 파룬궁의 연공 동작을 배웠지만 별로 책을 읽지 않았다. 하지만 여태껏 잘 간직하고 있었다. 오빠는 남편에게 “책부터 읽어보고 좋다고 생각되면 연공을 가르쳐 주겠어요.”라고 말했다.

그 후로부터 남편은 틈만 나면 ‘전법

큰 홍수가 닥쳤을 때 민간 기업주 신기하게 위험에서 벗어나다

글/장젠(張建)



2010년 7월, 큰 홍수로 자린(吉林)시의 많은 마을과 시내가 물에 잠겼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융지(永吉), 왕치(汪起) 두 곳인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융지현 부근에 공장이 있는데, 7월 27일 저녁 사장 가족과 형제들이 공장에 모였다. 날이 밝자 가족들은 공장에 이미 물이 든 것을 발견하고 큰소리로 외쳤다. “안 좋아, 홍수가 났어요.” 가족들이 급히 높은 곳으로 이동했을 때, 갑자기 장부가 아직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 사장은 가족들에게 빨리 뛰라고 하고는 본인은 장부 가지러 갔다. 그가 장부를 가지고 나왔을 때, 홍수가 이미 허리까지 차올랐을 뿐만 아니라 계속 급상승하고 있었다. 나갈 수 없게 된 그는 부랴부랴 기중기로 올라갔다.

홍수가 주위의 풍물을 삼키고 지붕을 잡겼다. 사장은 기중기에 30분쯤 갇혀 있었는데 놀람과 피곤한데다 먹지도 못했으니 버틸 수가 없었다. 이때 그는 예전에 파룬궁 수련생이 그에게 ‘삼퇴’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 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위험에 처했

을 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면 재난이 복으로 바뀌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고 알려주던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즉시 높이 외쳤다.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 바로 그때 참외 세 개가 그를 향해 떠오고 있었다. 그는 바로 참외 세 개를 건져 얼른 두 개를 먹었더니 기운이 느껴지며 배도 고프지 않았다.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나가려고 했다. 얼마 안 있어 옥수수 짚뭉치가 그에게 떠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았다. 놀라보니 팬찮다고 생각해서 기어 올라 엎드려 계속 표류했다. 지대가 비교적 높은 2층 건물 앞에 이르자 지붕에 물이 오르지 않아 그는 바로 올라갔다. 몇 시간 동안 옥상에 있었는데 나중에 가족이 그를 데려갔다.

사장은 자신의 경험을 가족과 친구에게 전하며 “파룬궁이 너무 신기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감탄했다. ◇

파룬궁 수련은 쌍방향으로 면역체계를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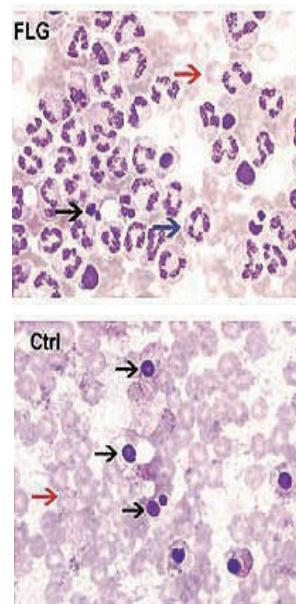
사람의 혈액에는 대량의 적혈구 외에도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는 체내의 주요 방어 메커니즘이다. 그중에 호중성 백혈구는 전체 백혈구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호중성 백혈구는 수명이 매우 짧다. 혈액 중의 반감기는 7시간밖에 안 되고, 체외에서는 더 짧은데 저온 보존도 2~3시간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람의 조혈기관 골수는 빨리 호중성 백혈구를 만들어 보충해야 한다. 체중 50kg의 사람은 매일 500억 개의 호중성 백혈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 베일러 의대 과학자들은 2005년 대체의학 분야 권위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의 혈액 백혈구 실험을 통해 파룬궁 수련자의 호중성 백혈구 삼키기와 세균 살상 기능이 정상 건강한 사람에 비해 현저히 강화돼 항바이러스와 관련된 조절 유전자를 현저히 증가시켜 각종 외래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1) 호중성 백혈구의 방어능력이 강화되면 수명이 늘어난다. 파룬궁 수련자의 호중성 백혈구가 정상인의 20~30%만 있으면 뛰어난 질병 저항력과 면역력에 도달하므로 이것 역시 골수가 호중성 백혈구를 만드는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 외주 혈액에서 분리된 호중성백혈구를 체외에서 16시간 배양된 뒤 나타난 현상이다. 세포가 염색된 후 현미경 아래에서 관찰 했다. 건강한 호중성백혈구: 블루 화살표. 죽은 세포: 검은색 화살표. 적혈구: 적색 화살표. 위 그림: 파룬궁 수련자의 세포는 거의 모두 살아 있다. 아래 그림: 정상 건강한 사람의 세포는 모두 이미 죽었다.



(2) 파룬궁 수련자의 세포는 면역 쌍방향 조절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면역체계는 양날의 칼처럼 병원(病原)을 죽여 기체(機體)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강하면 과도한 염증반응을 일으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파룬궁 수련자의 호중성 백혈구는 염증 자극이 없을 때는 생존 시간이 연공 하지 않은 사람의 세포 보다 길다. 게다가 삼기는 기능도 강해 기체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염증인자(因子)가 있을 때는 오히려 급격히 죽음으로 이르게 돼 염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륜' 을 펼쳐 들고 보았다. 때로는 보다가도 "정말 잘 말씀하셨네! 정말 맞는 말씀 아네!"라고 말했다. 오랜만에 남편이 웃는 얼굴을 보면서 나 역시 마음이 놓였다.

그렇게 보름 동안 책을 보았는데 남편은 양쪽 다리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게다가 발가락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 마치 물이 흐르듯 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동시에 온몸에 기름 연기 냄새가 났다. 처음엔 이불이 더러워진 줄 알았는데, 이불을 빼아도 여전했다. 그제야 20년 넘게 담배를 피웠던 남편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와 남편은 정말 신기하다고 느껴졌다!

어느 날 남편이 내게 "연공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듣자마자 "좋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라고 말했다. 나는 비록 파룬궁을 연마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엄마를 따라 연공 동작을 배웠었다.

그날 밤에 우리 둘은 연공을 시작했다. 연공하고 있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땅바닥에 텔썩 주저앉

▶ 북유럽 파룬궁 수련생이 단체 연공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경축하고 있다. (스웨덴 예터보리시, 2006년 1월 1일)



았다. 깜짝 놀란 나는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남편이 일어설 수 없다고 하자 놀란 나는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울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남편이 "방금 무슨 소리인가요."라고 묻자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소리이니 궤짝이 벌어졌나 보네요" 내가 답했다. 남편은 "내 등에서 소리가 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천천히 일어서더니 흥분하며 말했다. "일어섰어요! 내가 일어섰어요!" 나는 또 울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남편은 매일 책을 읽고 연공을 했는데 몸이 나날이 좋아졌다. 그의 가슴은 원래는 차가웠는데 꼬집어 봐도 감각이 없었다. 연공을 한 후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했다. 다리에서 냉기가 계속 내려오더니 점점 따뜻해지고 힘이 났다. 2주 후 남편은 거의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 한 달 후, 남편은 완전히 회복됐다.

나는 남편의 병에서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중인이다. 파룬궁이 중공에 참혹한 탄압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파룬궁 수련의 길을 걷게 됐다. ◇



규폐증이 사라지다

글/위메이(玉梅)



나와 남편은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에서 산다. 일찍이 근무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남편은 규폐(矽肺)증에 걸렸다. 정년퇴직 후 집에서 몸 관리에 주의했지만, 몸은 줄곧 좋지 않았다.

2018년 1월 남편은 심한 호흡곤란을 겪었다. 1월 4일 그날, 나와 딸은 남편을 모시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방금 촬영된 CT 흉부 사진을 본 의사는 폐가 ‘섬유화’ 됐다며 이는 현재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암이 아닌 암으로 불린다.”라고 했다.

이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다. 남편이 연거푸 의사에게 물었다. “고칠 수 있나요? 치료될까요?” 의사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

딸은 의사로부터 베이징 중일 우호병원에 이 병을 치료할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그 병원에 연락해 예약했다. 병원의 전문가에게서 한 달 분량의 양약을 사 왔는데, 7,000여 위안을 썼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두 달 치 수입이었다. 또한 이 약은 부작용이 매우 커서 위, 간, 신장에 모두 큰 손상을 입히기에 장기간 복용하기엔 전혀 감당할 수 없었다.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초조

해진 남편은 결핏하면 크게 화를 냈다.

한 달 약이 금방 떨어졌는데 식구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으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때 나는 남편을 구할 방법은 오직 파룬궁

(法輪功)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저와 함께 파룬궁을 배워봅시다.”라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1998년, 그때에도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두 사람은 파룬궁을 알아보았다. 그로부터 나는 파룬궁 수련에 들어갔고, 연공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목 디스크가 신기하게도 사라졌다. 남편은 비록 파룬궁을 연마하지는 않지만, 나의 이런 변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마하는 것을 매우 지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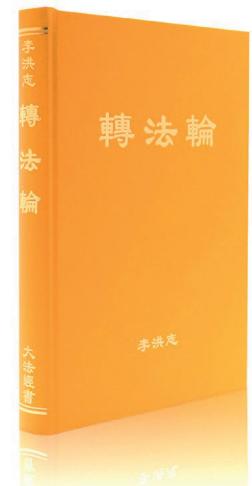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남편은 파룬궁을 연마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2018년 2월 중순부터 남편은 나와 매일같이 파룬궁을 배우며 연마했다. 차츰차츰 남편의 초조하던 마음이 느슨해짐에 따라 화도 내지 않게 됐다. 호흡도 갈수록 원활해지고, 얼굴색도 붉어졌고, 몸에도 힘이 나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남동생은 형이 약을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달려와 약을 권했다. 남편은 “내가 수련을 시작했기에 아무런 병도 없는데 무슨 약을 먹다니? 말리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4월 중순에 나와 딸이 남편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네 가지 치표 중 한 가지만 조금 모자랐을 뿐 나머지는 거의 정상이었다. 딸은 “이건 너무 신기해요. 약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두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라고 말했다.

지금 나와 남편은 매일 파룬궁 수련을 겸지하고 있다. 남편은 갈수록 몸이 좋아졌는데 기운이 넘쳐 집안일을 서둘러 다 했다. 우리 가족은 마침내 궁지에서 벗어났다. ◇



"천고기서" 책 한 권이 세계 각 종족 역만 명과 인연을 맺다

‘전법륜(轉法輪)’은 파룬궁(法輪功)의 주요 저작이다. ‘전법륜’ 책 이름은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1995년 1월 ‘전법륜’이 출판된 후, 즉시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1996년, ‘전법륜’은 ‘베이징 일보’등 신문에서 “연간 10 대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로 선정 받았다. 당시 중국에서 1 억 명이 파룬궁을 수련했었다. 1999년 7월 이후 파룬궁은 중국에서 종공의 온갖 박해와 모함을 당했다. 하지만 ‘전법륜’ 이 책은 오히려 전 세계 100 여 개 국가에서 공개 발행되고 있다. 40 여 개 언어로 된 버전은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국어책이다.

‘전법륜’은 천고기서(千古奇書)라 불리며 옛적부터 인류가 끈질기게 추구해 왔으나 이해할 수 없었던 우주와 인생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냈고, 현대의학이 속수무책이던 수많은 고질병 환자의 질병을 없애버렸으며, 전 세계 억대 사람들의 심신을 이롭게 했고 도덕을 회복시켰다.

밍후이왕을 열고 ‘전법륜’을 읽어 보세요

无界 <https://s3.amazonaws.com/693/um.apk>